

이생각 저생각

좋은 남자 콤플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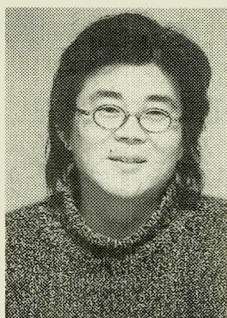
며칠전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 혼자서 투덜거리던 차에 옆에 서있는 차안의 남자를 보게 됐다. 그는 전혀 짜증내는 표정이 아니었고 음악을 틀어놓은 듯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운전석 깊숙이 몸을 기대고 있었다.

불현듯 친구가 하던 얘기가 생각났다. 그 친구는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자신만의 시간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데 비해 차 안에서는 음악도 듣고 생각도 하며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남녀 평등의 문제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대중 문화속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TV광고에서는 아내를 유학보낸 한 남자가 『남편들도 빨래를 하자』고 외치기 시작했고 TV나 영화속에서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 주인공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부드러운 남자」 배용준은 「강한 남자」 최민수를 누르고 인기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꽤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신세대 남성들은 그 밀려오는 새로운 남자이미지



이 현 승

영화감독

를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하루종일 직장에서도 시달리더라도 집에 가서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할 뿐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아이와도 일정시간을 함께 놀아준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자야 할 시간이 되어 버린

다. 「내일은 나혼자 조용히 책을 봐야지」하고 다짐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여자들은 자기만의 방을 갖지 못하고 남자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기형적인 가정은 과연 누구의 집일까. 남녀 평등, 민주적 가정이라는 문제가 진지하고 성숙한 논의속에 내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좋은 남자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남성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미국영화에서처럼 퇴근후 아내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생맥주와 팝콘을 들고 TV앞에 나란히 앉아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 「성공하지 못한 배용준」은 부드럽고 좋은 남자가 아니라 바보가 되는 치열한 경쟁사회라는 점이다.